



6 그림·글 이호신

경건한 삶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까?

다시 새날의 여정 속으로

일출 속 아잔타 가는 길

모든 역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행된다. 하루해가 저물어 하루가 적멸(寂滅)로 돌아가고, 해돋이로 다시 새날이 열린다. 어제의 참회가 적멸로 구원받고 일출의 풍경속에 삶의 서원이 다시 일어난다.

‘우-우-우-’
대초원에 불어드는 바람소리에 깨어보니 광활한 초원의 대지에서 밝은 해가 막 솟아오르고 있다. 이 순간 모든 초목과 동물은 생기를 발하며 생명의 축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마치 한 절대자의 지휘에 의해 자연 속 오케스트라가 일시에 연주를 시작하는 대합주, 대자연의 환상곡으로 깨어 나는 것 같았다. (‘풍물의 왕국 세렝게티’에서)

3년 전 아프리카 여행 중 대초원에서 맑은 해돋이의 감회는 풍광이 빛어낸 천지의 장엄, 그 극치에 다름 아니었다.

풍경이란 나의 세계(지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다. 산다는 것은 풍경을 가진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을 대한 공포는 바로 풍경을 잃어버리는 공포다. 풍경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드라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허만하, <낙타는 십리밖 들냄새를 맡는다>)

본다는 것은 지각(知覺)의 인식을 넘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반추하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

숙소에서 새벽4시에 기상해 여동길을 내달리니 일행은 잠을 떨지 못하고 모두 침션(?)에 잠겨 있다. 다만 옆자리의 스님은 잠을 깨 차창을 보라고 언거꾸 녹차를 권해 주신다.

“화가의 깨어나 있어야 한다. 이 여동과 새벽의 여정을 당신은 누구보다 살피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눈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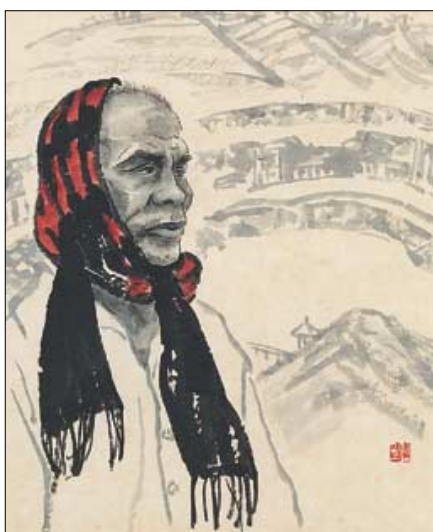
어제 옐로라쉬곶에 이어 오늘은 아잔타 석굴 가는 길. 데칸고원을 가로지르는 새벽길은 내 삶의 테이프 눈금 위에서 우주와 통신하고 있다. 어둠속 회청색 하늘이 마침내 보라빛으로 물드니 어느새 여명이 밝아 오고 붉디붉은 해가 대지 위로 솟아오른다. 어제의 적멸에서 오늘의 생명으로 살아 오르는 새 역사의 웅비, 거룩한 장엄, 오 진리의 빛이여!

결국 건너편 좌석의 동행은 깨워 저 장엄을 함께 나누자고 채근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이 환희에 차 오르니 비로소 풍경은 내 것이 되었다. 새날을 일깨우는 여정, 어제의 회한을 접고 다시 일구는 마음밭이다. 즉 밝은 사색을 가져오지만 아침은 실현의 장(場)으로 현실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대평원에 열을 잇는 해바라기, 드문드문 벚가리들이 지나가고



▷새날의 여정(79×141cm).



▷아잔타석굴을 안내하는 ‘부디’ 씨(46×64cm).

초목과 바위산, 기옥구조가 모두 다른 초가와 판자집들이 드러난다. 황량한 초원 우물에서 도르레로 물을 길어 올리는 여인들과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 흰색의 사리를 입은 젊은 아나미 새날을 여는 주인공이다. 이 순간, 이 경건한 삶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 새로운 기도는 없다. 누군가 “저들은 오직 초목생활로 최소한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 조용히 왔다 갔다.” 고 했을 때 내 마

한 가슴에도 바람 소리가 들렸음을...

한때 이곳 데칸고원은 무갈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아우랑제브(Aurangzeb)에 의해 아우랑가바드(Aurangabad)라는 지명을 얻게 된 곳이다. 그 곳에 산재한 아잔타 석굴사원은 인디아드리 구릉의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었다. 익히 많은 사진자료에 밝혀져 있는 바 아잔타는 말교묘양으로 구부러진 외곽라천(川) 뒤로 성벽같은 지형에 30개 석굴이 조성된 사원이다.

물길는 아낙네 손길에 여명은 걸히고

성벽같은 석굴사원, 억겁 인연 고스란히

먼저 전경을 살피기 위해 전망대에 이르니 잠상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화첩을 펼치기조차 난감하다. 또 바람 때문에 먹물에 모래가 끼어 버젓을 더해 가기가 난감하다. 터디게 머물 내 처지를 간파한 일행들은 벌써 석굴 아래로 내려갔고 홀로 남은 나는 말이 통하지 않은 꼬마 잠상인들과 실랑이를 벌려야만 했다.

내 급박한 상황은 기념품이나 사진 자료가 아니라 저 우자(維婁) 한 석굴의 풍경을 담을 수 있게 석굴 주변을 안내해 줄 이가 필요

한 경우였다. 이에 손길 밟지하는 내 뜻을 살핀 한 노인이 아이들을 몰리고 앞서서 인도하니 ‘부디’라는 60대 노인이다. 내리막길에서 마주친 인도 청년, 처녀들의 눈부신 사라웃이 발목을 잡아 노인에게 눈짓하자 그들을 세워 모델로 스케치와 기념사진까지 찍게 배려해 주는 게 아닌가.

작은 키에 갸름 얼굴,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아이들지도 못하는 힌두어로 열심히 설명해 주는 부디씨는 오늘 내게 하늘이 내려준 대보살이다. 억겁의 인연이다.

그는 마치 내 생각을 꿰뚫고 있는 듯 원했던 장소로 나를 이끄는 데 사진으로서는 한눈에 밝혀질 수 없는 좌측 마지막 석굴의 베타, 즉 물굽이가 시작되는 폭포수 위로 안내하니 지형의 근원, 산세, 석굴의 이미지가 한 눈에 펼쳐진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런 행운이 아닌가. 때마침 그의 손녀들이 나타나 친구들과 댄스로 베타위를 뛰고 날아다니니 요정들이 터블어 아잔타를 그리기 위한 내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듯 착각이 빠진다.

위에서 보면 어느 황성의 표면 같고, 다가가서 보면 수 억 년 용암이 녹아 수직 터널로 빗어진 기암 계곡은 스스로 수많은 소(瀑)를 이루고 또 폭포가 되어서 아잔타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lsh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인사 · 실크로드여행사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면 5월 31일까지 장수호두 약돌 1set를 드립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부드러운지압용 장수호두약돌(소) 강한 지압용 장수호두약돌(대)

약위와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치는 염험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산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약위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7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혈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무병중년 분, 큰 고인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사원의 (02)723-0909
전혀로 주수 성령을 일러주시면 무재국 황기소포로 전권이다나 법이 결안될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날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병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몰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금강의 강한기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필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기도장인 하시는 스님께서는 점안을 사용하신후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도 미백효과도 뛰어납니다.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혈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황토생명공학 센터에서 황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기(7)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님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기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분, 수술을 받으신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